

# 김광현 ERA 0.83...연착륙 넘어 MLB 초특급 투수 급부상

신시내티온 선발 등판해 5이닝 무실점 호투  
MLB입성 후 2승째...연일 호투 '초특급 선발'  
규정이닝 못채웠지만 신인상 후보 오르내려

'꿈의 무대'인 메이저리그(MLB)에 입성한 김광현(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이 연일 호투를 선보이고 있다. '적응이 순조롭다'는 표현보다 '초특급 선발'이라는 말에 더 가까운 정도로 나올 때마다 제 몫 이상을 해내는 중이다.

김광현은 2일(한국시간) 미국 신시내티온의 그레이트 아메리칸 볼파크에서 열린 2020 MLB 신시내티온 레즈와의 원정경기에서 선발 등판, 5이닝 3피안타 2볼넷 4탈삼진 무실점 투구를 선보였다.

팀이 16-2 대승을 거두면서 김광현은 MLB 입성 후 2승째를 챙겼다.

포스팅시스템을 거쳐 꿈에 그리던 MLB에 입성한 김광현은 마무리 투수로 나선 지난 7월 25일 피츠버그 파이러츠와의 데뷔전에서 1이닝 2피안타 2실점을 기록했다.

익숙하지 않은 클로저 역할과 첫 경기라는 부담 때문인지 꽤나 많은 땀을 흘렸던 김광현은 선발 전환 뒤 본연의 모습을 맘껏 뽐내고 있다.

첫 선발 등판이었던 지난달 18일 시카고 컵스전에서 3이닝 3피안타 1실점의 무난한 투구를 선보인 김광현은 22일 신시내티온 레즈를 상대로 6이닝 3피안타 무실점으로 첫 승을 수확했다. 승리를 챙기지 못했지만 28일 피츠버그전에서도 6이닝 3피안타 무실점으로 선발 투수의 역할을 완벽히 수행했다.

이날 신시내티온을 다시 만난 김광현은 자신이 마운드에 서있는 동안 한 번도 흠을 허락하지 않았다. 직구와 주무기인 슬라이더를 적절히 배합해 타자들을 상대했다. 야수들을 믿고 공격적인 승부를 택한 것이 주효했다.

KBO리그 활동 기간에도 드물었던 17이닝 연속 비자책 행진을 이어간 김광현은 평균 자책점을 0.83(21%이닝 2자책점)까지 떨어뜨렸다. 선발 4경기로 범위를 좁히면 평균자책점은 0.44에 불과하다.

현재 MLB 전체 평균자책점 1위인 클리블랜드 인디언스의 세인 비버가 1.20을 기록 중인 것을 감안하면 이제 딱 첫 발을 댄 김광현이 세계 최고의 선수들 사이에서 얼마나 뛰어난 모습을 보이는지 한눈에 알 수 있다.

다만 김광현은 규정이닝을 채우지 못해 순위권에서 제외됐다.

경쟁자들과 달리 마무리 투수로 시즌을 출발한데다 일정상 세인트루이스의 더블헤더가 많아 앞으로도 규정이닝 채우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신인상의 가능성은 열려있다. 타율 0.356, 4홈런, 17타점의 제이크 크로넨워스(샌디에이고)가 내셔널리그 신인상 0순위로 꼽히는 분위기지만, 아직 시즌이 꽤 남아 변수는 있다.

아직 MLB에서 한국 선수가 신인상을 받은 경우는 없다. 뉴스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 김광현이 17일(현지시간) 미 일리노이주 시카고의 리글리 필드에서 열린 2020 미 메이저리그(MLB) 시카고 컵스와 연승경기 1차전에서 선발 등판해 1회 투구를 마치고 포효하고 있다. 김광현은 3%이닝 3피안타(1피홈런) 3볼넷 1탈삼진 1실점 했고 1-1 동점 상황인 4회 말 2사에 교체됐다.

## 메이저리그 연착륙 비밀병기는?...김광현표 완급조절

'KK' 김광현(32·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이 메이저리그에 연착륙하고 있다.

김광현은 2일(한국시간) 미국 신시내티온의 그레이트 아메리칸 볼파크에서 열린 '2020 메이저리그(MLB) 신시내티온 레즈와의 원정경기'에 선발등판, 5이닝 3피안타 2볼넷 4탈삼진 무실점 호투로 승리투수가 됐다.

지난달 23일 신시내티온전에서 메이저리그 데뷔 첫 승을 올렸던 김광현은 이날 신시내티온전에서 시즌 2승을 달성했다. 시즌 평균자

책점은 1.08에서 무려 0.83으로 낮아졌다. 아직 5경기밖에 나오지 않았지만, 대단한 기록임에는 틀림없다.

직구 평균 90마일(145km) 수준의 구속으로 메이저리그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아 보였지만, 김광현은 제구력과 완급조절 능력으로 빅리그 타자들을 제압하고 있다.

이날 김광현의 완급조절, 위기관리 능력이 돋보였다.

직구 최고 구속은 92마일(148km)에 그쳤

지만, 주무기 슬라이더로 위력을 배가시켰다. 가끔씩 던지는 커브, 체인지업도 타자들을 곤혹스럽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스트라이크 존 내·외곽을 적극 활용하는 제구력이 더해지면서 위력이 더해졌다.

빠른 투구 템포에 비해 신중한 김광현의 완급조절 능력에 타자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

이날 김광현은 득점권 위기 상황에서 두 차례나 병살타를 잡아냈다.

직구 평균 90마일(145km) 수준...제구력·완급조절 능력 돋보여  
주무기 슬라이더로 위력 배가...내외곽 적극 활용 스트라이크존

김광현은 1회말 선두타자 조이 보토에게 볼넷을 내준 후 다음타자 닉 카스테야노스를 유격수 땅볼로 유도해 병살타를 이끌어냈다. 높은 직구로 병타를 유도했다.

3회 1사 1, 2루 위기에서는 직구의 제구력으로 카스테야노스를 유격수 병살타로 처리했다. 김광현은 몸쪽 직구 2개에 이어 바깥쪽 직구를 던져 병살타로 위기를 넘겼다.

위기 상황에서도 당담한 피칭으로 흔들림

없는 모습을 보였다.

이날 김광현은 4개의 삼진을 잡아냈다. 직구와 커브 등으로 유리한 볼카운트를 만든 후 워닝샷은 모두 슬라이더를 선택해 삼진을 속여냈다.

김광현과 최고 포수 야디에르 몰리나와 호흡도 좋았다. 몰리나는 노련한 투수 리더로 김광현의 장점을 끌어내주며 호투에 디딤돌이 되고 있다.

## 선수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 최대 위기 직면한 프로야구

한화 이글스 재활군 투수 이어 육성군 투수 추가 확진...일정 중단



1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야구장에서 열리는 2020 신한은행 SOL KBO리그 한화 이글스와 두산 베어스의 경기에 앞서 마스크를 착용한 한화 선수들이 몸을 풀고 있다.

어렵게 출발한 2020 KBO리그가 첫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선수 확진자의 발생으로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처음 선수 확진 소식이 들린 것은 지난달 31일이다. 고열 증세를 보인 한화 이글스 재활군에 머물던 투수 신모씨가 코로나19 검사 결과 양성 반응을 보였다.

하루 뒤인 1일에는 육성군 소속 투수 김모씨가 추가 확진자로 밝혀졌다. 재활군과 육성군 등 97명의 한화 퓨처스 선수단 김진 대상 중 45명이 음성, 2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50명은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개막 후 4개월 가량 확진자 '0'을 유지하며 결과적으로 방역에 성공해 온 프로야구계는

선수 확진자의 발생에 발각 뒤졌다.

일단 퓨처스리그는 당분간 파행이 불가피하다. 한화가 속한 북부리그는 이번 주까지 모든 일정을 중단하기로 했다. KBO는 한화의 경우 다음 주에도 경기가 어렵다고 보고 있다.

최악의 경우 1군 경기에도 파장이 미칠 수 있다. 지난 4월 KBO가 발표한 코로나19 대응 통합 매뉴얼에 따르면 역학조사관의 조사 결과 접촉자(자가격리 대상자)의 범위가 리그 진행에 문제가 되는 것으로 판단시 긴급실행위원회를 통해 중단을 논의한다.

확진자 또는 격리 대상자가 늘어나거나 1군 선수 중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이가 나오면 리그의 중단까지 감수해야 한다는 의미다.

가뜩이나 얇은 선수층에 허덕이고 있는 한화는 이번 사태로 운용의 폭이 더욱 좁아졌다. 50명의 검사 결과가 모두 나온 뒤 밀접접촉자와 자가격리자가 분류되면 정도에 따라 해당 선수는 일정 기간 출전이 불가능하다.

상당수가 자가격리자가 될 것으로 보여 한화는 2군에서의 풀업이 어려울 전망이다. 신모 선수와 밀접 접촉해 코로나19 검사를 받았지만 음성 판정이 나온 현 1군 선수 2명의 출전도 장담할 수 없다.

KBO 관계자는 "보건 당국에서 어제부터 CCTV와 현장 조사를 통해 확진자와의 밀접접촉자를 확인 중이다. 자가격리자가 되면 출전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뉴스

## 현대캐피탈·삼성화재 이승원↔김형진 트레이드

프로배구 V-리그 현대캐피탈과 삼성화재가 세터를 맞바꾸는 깜짝 트레이드를 단행했다.

현대캐피탈과 삼성화재는 세터 이승원과 김형진의 맞트레이드를 실시했다고 2일 밝혔다.

두 팀 모두 미완의 세터인 선수들을 카드로 내세워 새 시즌 승부수를 던진 모습이다.

김형진은 2017년 타이베이 하계 유니버시아드 배구국가대표와 2017년 대학배구 세터상을 받은 선수다. 홍익대 재학 시절에는 주장으로 무패 우승을 이끌었다. 2017-2018시즌 신인 선수 드래프트 1라운드 4순위로 프로에 입단해 매 시즌 30경기 이상을 소화했다.

이승원은 2014-2015시즌 1라운드 6순위로 현대캐피탈에 합류했다. 2018-2019시즌에는 주전 세터로 우승에 기여했다.



현대캐피탈과 삼성화재는 "팀 분위기 쇄신과 발전 가능성에 주안점을 뒀다. 2020-2021 시즌 팀 리빌딩을 통해 경기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뉴스

## 최경주 없는 최경주 인비테이셔널...“코로나로 귀국 포기”

올해 현대해상 최경주 인비테이셔널에서는 호스트인 최경주(50)를 볼 수 없다.

최경주는 24일 여주의 페럼 클럽에서 개막하는 이번 대회에 불참한다고 2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 때문이다.

최경주는 보도자료를 통해 "호스트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 참가하려고 백방으로 노력했으나 코로나19로 고심 끝에 귀국을 포기했다"고 설명했다.

미국에 머물고 있는 최경주는 국내로 입국하면 방역 지침에 따라 2주 간 자가격리에 임해

야 한다. 최경주는 이 대목에 부담을 느꼈다고 설명했다.

최경주는 "5월에 만 50세가 돼 챔피언스투어에 데뷔, 현재까지 3개 대회에 출전했다. 샷감과 몸 컨디션은 현재 아주 좋다"면서 "귀국하면 자가격리 기간을 감안해 대회 개막 최소 3주 전에는 들어야 한다. 그리고 대회를 마치고 나면 곧장 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 챔피언스투어와 다음 시즌 PGA투어 출전 때문인데 자가격리로 인한 연습 부족과 시차적응 문제로 국내 대회는 물론 미국에서도 좋은 경기를 펼칠 수가 없다"고 보였다.